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른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로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01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_____ ㉦ _____ 분에게 추천합니다.

- ① 감정을 정확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타인의 일상을 담고 있지 않다.
-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정신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이원론과, 인간과 사물은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일원론 간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1문단).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4문단), 실제로는 발생했더라도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므로 의심이 가능하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이원론에 따르면 정신은 비물리적이므로(1문단),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는 존재할 수 없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원자나 엑스선을 가정했을 때 설명 가능한 것들이 있듯이, 정신을 가정했을 때 설명 가능한 것이 있다는 진술로부터(3문단) 원자나 엑스선은 정신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원자나 엑스선은 물리적 대상이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두 대상이 다른 특성을 지니면 그 둘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3문단), 두 대상이 똑같은 특성을 지니면 그 둘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데카르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없으리라고 보았다(3문단).

03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동일론자는 정신을 두뇌의 물리적 상태로 보므로(1문단), 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가 두뇌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물질을 가지게 되면, 같은 종류의 정신 또한 갖게 된다고 볼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동일론자는 인간이 정신을 가진다고 본다(1문단).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동일론자는 정신을 두뇌의 물리적 상태로 보므로(1문단), 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가 두뇌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물질을 가지게 되면, 같은 종류의 정신 또한 갖게 된다고 볼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동일론자는 기술이 발달하여 물리적 여건이 나아진다면, 컴퓨터 역시 정신을 갖게 된다고 볼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동일론자는 인간이 정신을 지닌다고 보며(1문단), 컴퓨터 또한 기술이 발달하면 정신을 갖게 된다고 볼 것이다.

0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보기>

-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군.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3문단).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무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1문단).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원자나 엑스선을 가정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원체를 가정했을 때 감염병이 가장 잘 설명되므로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3문단).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생각일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4문단).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 것은 생각할 수 있다(4문단).

0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같더라도, 이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비판이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같더라도, 감성적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비판이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동일론자는 기계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1문단). 또한,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3문단)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단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것은 비판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수학적 추론의 종류가 같더라도, 선택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컴퓨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비판이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원본과 모조품이 질적으로 다르듯이, 인간의 수학적 추론은 그것을 모방한 기계의 수학적 추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비판이다.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유사성에 기반한 추론이 활용되고 있는 맥락이므로 적절하다.
- ② ㉡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기계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대표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 ③ ㉢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또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화학적인 조성을 띠는다는, 즉 물리적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의심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 ④ ㉣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어떤 것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논증이 진행되고 있는 맥락이므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 ⑤ ㉤ : 독립적인 존재인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별도의 존재 즉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1문단).

cf. 4문단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X와 Y가 동일하다면 둘의 특성은 동일하다.
2. 정신에 대해,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3. 육체에 대해,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다.
4. 따라서 육체와 정신은 특성이 서로 다르다.
5. 따라서 육체와 정신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론자의 반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X와 Y가 동일하다면 둘의 특성은 동일하다.
2. 따라서, X가 어떤 특성을 가질 때 Y가 그 특성을 가지지 않으면, X와 Y는 동일하지 않다.
3. 정약용에 대해, 그가 <목민심서>의 저자임을 의심할 수 없다고 가정하자.
4. 다산에 대해, 그가 <목민심서>의 저자임을 의심할 수 있다.
5. 따라서 정약용이 '목민심서'의 저자임을 의심 불가능함'이라는 특성을 가질 때, 다산은 그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6. 따라서 정약용과 다산은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정약용과 다산은 사실 동일하므로, 결국 1번 전제였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부터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론자들은 그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 원리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의심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반례가 존재하는 한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